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2. 9. 5(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스마트시티과
담당	과장 정윤희, 스타트업육성팀장 서정목, 담당 김순미 (032-453-7484)

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한다면?

차세대 유니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12일까지 모집

스타트업 5개사 내외 선정·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서 접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앞장선다.
- 지난달, 한·아프리카재단의 MOU 체결 후, 처음으로 재단과 손을 맞잡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2년 차세대 유니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데모데이(Demoday : 스타트업을 홍보해 투자, M&A, 구매, 채용, 홍보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테크썬밋 참가, △전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 모집 대상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또는 지원 프로그램 참가 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상 7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 5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www.startuppark.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센터 032-228-1219로 하면 된다.

-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며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글로벌 진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아프리카 진출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해외 시장으로 스타트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2월 공식 문을 연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생태계 활성화, 실증,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부분으로 나뉜 세밀한 지원체계를 구축,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글로벌 실증, 전시 참여를 지원하는 유전담사를 통해 40여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